

# 테슬라 제친 ‘기아 EV6 GT’… 獨 전기차 평가 종합 1위

車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전기차 비교평가서 총점 585점 획득  
안전성, 파워트레인, 주행서 최고점

기아EV6GT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의 고출력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 차량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EV6GT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실시한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총점 5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기아EV6GT를 비롯해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지커 7GT 프리 빌리지 AWD, 폴스타 4 쿠페 듀얼 모터, BYD 씨라이언 7AWD 액셀런스 등 5개 차종이 참여했다.

EV6GT는 585점을 받아 576점을 기록



기아 EV6 GT.

/기아

한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를 9점 차로 앞섰다. 지커 7GT 프리빌리지는 569점, 폴스타 4 쿠페 듀얼 모터는 531점, BYD 씨라이언 7AWD 액셀런스는 508점을 받았다.

평가는 차체와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EV6 GT는 안전성 89점, 파워트레인 105점, 주행성능 96점으로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EV6 GT는 시속 100km에서 정지하는 데 냉간 조건 34.5m, 열간 조건 33.5m를 기록해 비교 차량 중 제동거리가 가장 짧았다. 478킬로와트(kW·650마력)의 최고 출력과 주행 안정성, 조향 성능, 회생제동 기능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V6GT는 앞서 2023 월드카 어워즈에서 32개국 자동차 기자 100명의 평가를 거쳐 ‘세계 고성능 자동차’로 선정됐다.

기아 관계자는 “EV6 GT가 글로벌 전기차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안전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등 핵심 부분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전동화 주행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상품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 중진공, 전북서 K-푸드 공급망 강화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전날 전북 익산 하림산업에서 ‘K-푸드 상생협력 거버넌스’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나일흠 신한은행 호남서부 본부장, 천세기 하림지주 사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김진섭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금융부문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 한남, ‘따소미 에코시 미래학교’ 첫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1일 에코피아시아, 피플에듀와 함께 ‘따소미 에코시 미래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기 부사장(가운데)이 에코피아시아 김원호이사장(왼쪽), 피플에듀 김범준 대표(오른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남



## 삼성전기, ESG·친환경 부문 대통령 표창

삼성전기는 지난 21일 열린 ‘2026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에서 ‘녹색산업·ESG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삼성전기 관계자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종민 삼성전기 글로벌안전센터장이 대통령 표창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기



## 삼양식품, 弗 파리 식품박람회 참가

삼양식품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알 파리 2026에서 메인 부스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총 5만6000여명의 관람객과 유동 관계자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매일 4차례 진행한 시식 행사에는 누적 1만 6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부스 이벤트 참가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삼양식품



## 광동제약, 오는 30일까지 친환경 전시회

광동제약은 오는 30일까지 과천 본사 1층에서 참여형 친환경 전시회 ‘잊혀지지 않는 展’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 예술 공동체 ‘레프스’와 협력한 행사로 잊히기 쉬운 자연과 사물의 가치를 회화, 도예, 섬유, 설치미술 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장르 작품이 선보여진다.

/광동제약

## 정몽구재단 장학생, 콩쿠르서 잇단 수상

피아니스트 신영호, 이정우, 이주연  
유럽·미국 등 국제 콩쿠르서 성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원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3명이 올해 유럽과 미국의 국제 콩쿠르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문화예술 장학생 신영호(사진)가 지난 17일 이탈리아 베르첼리에서 열린 ‘제76회 잔 바티스타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정우는 루마니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주연은 미국 국제 콩쿠르 3곳에서 입상했다.

신영호는 지난해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와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다. 2023년부터 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프랑스 파리 에콜노



르말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정우는 지난달 제 20회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하고 특별상 5개를 받았다.

이주연은 올해 힐튼헤드·지나 비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와 특별상을 차지했으며 오는 11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본선에 출전한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어린 나이부터 세계 무대에 도전해온 장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한 번의 수상보다 오랜 시간에 걸친 성장이 중요한 만큼 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 VC협회-한국장학재단,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가 발굴, 기업 성장 연결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청년 창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VC협회는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창업기숙사 입주 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우수 청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벤처투자 시장 동향 및 청년 창업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VC협회 이준희 상근부회장은 “청년 창업가의 도전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준희 상근부회장(왼쪽)과 한국장학재단 박단호 청년지원본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VC협회

력이자 미래를 여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협약을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투자 기회를 얻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쿠광폴필먼트서비스, 전문대졸 첫 공채

정규직 ‘팀캡틴’ 채용… 물류인재 육성  
오는 11월 8일까지 지원자 모집

쿠광폴필먼트서비스(CFS)가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첫 공개채용에 나선다. 정규직 팀캡틴으로 채용해 물류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쌓도록 하고, 향후 운영관리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CFS는 가수제 채용 프로그램인 ‘물류 리더 START 1기’의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 추가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직무인 팀캡틴은 전국 폴필먼트센터(FC)에서 입고·보관·출고 등 물류 공정 관리와 현장 안전,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삼성SDI,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표단 후원

교육·선발·대회 참가 공식 지원

삼성SDI가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의 교육과 선발, 대회 참가를 후원하며 기초과학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삼성SDI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화학회와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한국 대표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SDI는 내년 1월부터 대한화학회가 운영하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의 교육·선발·대회 참가를 공식 지원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별도 장학금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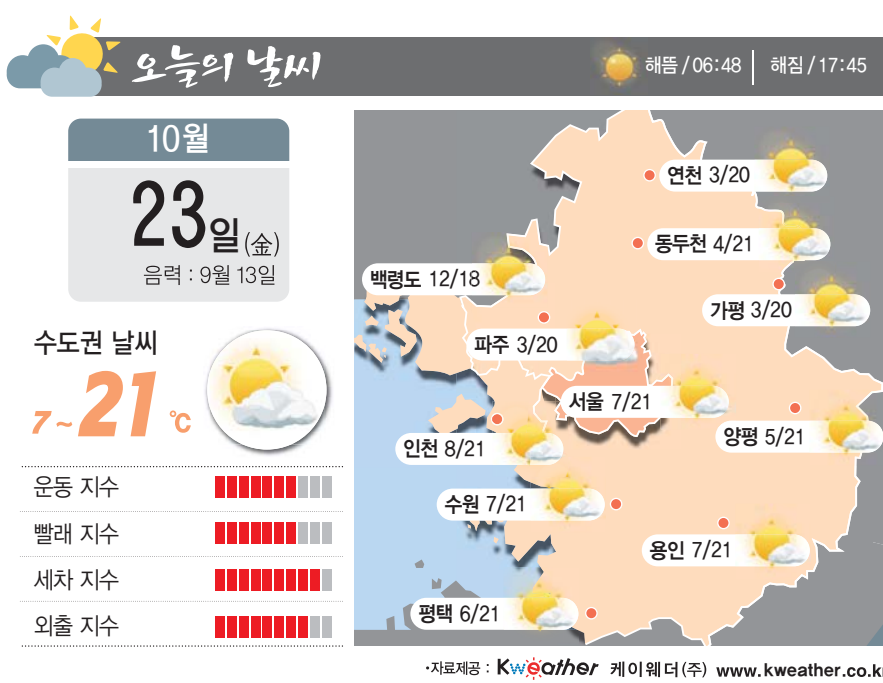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매년 세계 각국 고교생들이 화학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한국은 19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제24회 대회부터 대표단을 파견해 왔다. 내년 제59회 대회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은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SDI의 이번 후원으로 삼성 계열사들의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지원 분야는 화학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을 각각 후원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연구 지원, 교육 후원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